중국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 가사 연구

안병삼*

〈차 례〉

1. 머리말
2. 연구대상 조선족학교 교가
3. 조선족학교 교가의 가사 분석
   1) 배움(터) 강조
   2) 민족의식 고취
   3) 공산당 찬양
4. 맺음말

【국문초록】

최근 중국 조선족학교의 폐교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조선족학교 교가가 급속히 유실되는 현실 속에서 본 논문은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 현지에서 수집된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47개교의 교가를 대상으로 그 가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는 다음과 같은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배움(터)의 중요성 강조이다. 배움(터) 강조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배움(터)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선족학교 교가가 순수하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 혹은 학

* 초당대학교 교수

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등소평의 실사구시 정신에 따라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을 발전시켜한다는 중국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영한 것이었다. 둘째, 민족의식 고취이다.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에 나타난 민족의식 고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주로 1945년 일제패망이전에 조선족학교 교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우리 민족의식을 배양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교가에 나타난 민족의식으로,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서 다른 민족 문화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는 동시에 여러 민족들을 통합하여 사회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만들려는 취지에서 중화사상을 교가에 표현한 것이다. 셋째, 공산당 찬양이다.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의 가사 속에서 나타난 공산당 찬양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선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대화, 과학기술, 성실한 노동자 등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점은 이러한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 조선족학교 교가 속 공산당 찬양은 권력의 도구로 학생들을 치부하고 사상적으로 중무장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주제어: 조선족학교, 흑룡강성, 교가, 가사, 민족의식, 중화사상, 공산당

1. 머리말

2011년 6월 10일 대한민국 우정사업부는 신흥무관학교 개교 100

주년을 기념하여 우표를 발행하면서 우표에 신흥무관학교 교가 가사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된 신흥학우단의 모습을 담았다. 우리 정부는 신흥무관학교 교가에 나타난 신흥무관학교의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신흥무관학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하였다. 2013년 4월 27일에는 100여 년 전 민족교육과 항일운동의 기지였던 북간도 명동촌에서 윤동주 시인과 문익환 목사 등이 불렀던 명동학교의 교가가 복원되어 공개되었다.[1] 그동안 명동학교 교가는 가사만 존재하였고 악보는 소실되고 없었다. 이렇듯 교가는 각 학교의 교육이념을 담고 있는 노래이다.[2] 그러므로 교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애교심과 단결심을 기려 자긍심을 갖도록 하며 학교의 교육관을 담은 노래가 된다.[3] 동시에 교가는 학교 구성원들의 정체성 확립과 일체감 형성에 큰 기여를 한다. 특히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는 타국에서 살아가는 한 민족들이 서로 다른 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추구하였던 그들의 정체성 유지 및 단결, 교육적 이념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

1) 규암김약연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2013년 4월 27일 역사박물관 6층 강의실에서 '국외 민족운동의 요람 명동학교'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민경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가 명동학교 교가의 곡조로 사용된 원곡의 유입과정과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 악보도 복원해 첫 공개하였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584415.html. (검색일: 2013년 6월 5일)

2) 교가는 하나의 학교를 노래라는 형식을 빌려 표상 또는 상징하는 것을 말한다. 교가에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학교의 교육목표나 건학정신, 교풍, 지역의 정서 등이 내포되어 있다. 교가를 제정할 때 작곡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작사는 학부모・교사・지역주민 등에게 위촉 또는 공모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교가는 4분의 4, 또는 4분의 2박자이고, 가사는 1절 또는 2절로 이루어지며, 후렴을 두는 형식을 하고 있다. 김미영, 『충청남도에 소재한 중학교의 교가 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 5.

3) 손태룡, 『한국음악논전』,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p. 600.

그동안 잊고 지냈던 중국에서의 조선족교육은 20세기부터 험난한 역사적 굴곡 아래 중국이라는 타민족 국가 내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마을마다 조선족학교를 세워 후세를 교육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그들이 세운 조선족학교는 한 때 1,500여개가 존재하였지만 지금은 인구의 감소에 따른 조선족집거지의 붕괴와 이에 따른 인구의 유출로 조선족학교의 폐교와 통합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중국 조선족학교는 60%의 폐교율을 보였으며 조선족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동북3성 중 흑룡강의 경우 2007년 현재 80%이상 폐교율을 보였다.[4] 그 결과 반일 및 독립사상, 민족의식 등을 담고 있는 수많은 조선족학교 교가가 유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조선족학교 교가의 유실을 막고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 가사를 대상으로 그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겠다.

흑룡강성은 중국의 동북부지역에 위치하며 중국 내 위도가 제일 높고 제일 북쪽에 있는 省이다.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남쪽과 서쪽으로는 길림성과 내몽고자치구와 접하고 있다. 면적은 45만 3천 9백 평방킬로미터로서 중국 총 면적의 4.7%를 차지하고,[5]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2010년 중국정부의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327,806명이다.[6]

---

4) 문정매, 『중국조선족학교 통·폐합의 원인분석 - 흑룡강성 조선족학교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5) 허청선 외, 『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4』(하), 연변교육출판사, 2004, pp. 968-969 참조.

6) http://www.dituhui.com/data/19599 참조(검색일: 2013년 10월 5일)이외에도 길림성은 1,040,167명, 요녕성은 239,537명이었다. http://bbs.tianya.cn/post-worldlook-502201-1.shtml 참조(검색일: 2013년 10월 5일) 중국 내 조선족 인구는 총 1,830,929명으로, 전체 인구의 0.1374%를 차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된 후 50년대부터 흑룡강 조선족교육은 본격적으로 공산당의 교육방침과 정책을 따르기 시작하였으며, 일정한 규모를 갖춘 교육체계를 이루어 사범교육, 중소학교 교육망을 형성하였고, 문맹퇴치를 중점 사업으로 한 성인교육과 유아교육이 크게 발전하였다.[7] 이에 1957년 흑룡강성에 319개교의 조선족소학교는 1958년에 347개교로 늘어났고, 중학교 역시 6개교의 완전중학교와 10개교의 초급중학교에서 1958년에는 완전중학교가 10개교로 발전하였고 초급중학교는 5개교가 더 늘어났다. 반면에 중학교 교육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교원과 교실이 부족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8] 문화대혁명 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흑룡강성 조선족 교육의 가장 번성기였다. 인구에 있어서도 당시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였고, 교육에 있어서도 민족교육사업을 활발하게 벌인 시기였다. 또한 중국 정부 역시 조선족 민족의 특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사업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1982년에는 소학 6년, 초중 3년, 고중 3년인 학제를 실시하였다.[9] 1977년 흑룡강성 조선족중학교는 182개교로 급격히 늘어났고 재학생은 27,703명이었다. 조선족소학교는 327개교로 다소 줄어들었고 재학생은 42,732명이었다.[10] 1988년 흑룡강성 조선족소학교는 모두 405개교이었으며, 재학생은 35,422명이었다. 조선족중학교의 경우는 모두 85개교이었으며 재학생은 20,748명이었다.[11] 1993년의 기록에 의하면, 흑룡강성 조선족소학교는 380개교였고, 그 재학생은 34,975명이었다. 조선족중학교

---

7) 안병삼,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 연구」, 『인문과학연구』 3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p. 533.

8) 최범수 외 편, 앞의 책, pp. 170-171 참조.

9) 최범수 외 편, 앞의 책, pp. 283-316 참조.

10) 같은 책, pp. 295-296 참조.

11) 같은 책, pp. 344-346 참조.

는 68개교였고 그 재학생은 16,925명이었다.[12] 2006년에는 조선족학교의 통·폐합으로 흑룡강성에 존재하는 조선족학교는 모두 58개교이다.[13] 다음은 흑룡강성 조선족학교의 숫자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1>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숫자의 변화[14]

학교	1949	1965	1977	1988	1993	2004	2012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초등학교	274	419	327	405	380	90	23
중학교 (중·고등학교)	13	34	182	85	68	34	16
통합 조선족학교	-	-	-	-	-	-	9
합 계	287	453	509	490	448	124	48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흑룡강성 조선족학교는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흑룡강성 조선족교육이 가장 번성하였던 시기에 조선족학교가 500여개교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남아있는 조선족학교는 50여개교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조선족학교의 통합과 폐교로 인해, 수많은 한민족 문화 중의 하나인 '학교문화자원'이 소실되어가고 있으며, 교가 역시 그 중의 하나이다.

최근 조선족학교의 통합과 폐교는 조선족학교 수의 감소나 교가의 소실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중국 내 조선족의 민족교육에 대한 위기이며, 민족교육의 위기는 조선족 자체의 민족성 약화를 의미하며 한족으로의 동화를 가속화하여, 앞으로 우리

12) 崔相錄 외,『中國朝鮮族教育的現狀与未來』, 延邊大學出版社, 1995, p. 26 참조.
13) 羅正日,「關于黑龍江省朝鮮族教育情況的調查」,『黑龍江民族叢刊』95-6, 2006, pp. 99-105 참조.
14) 문정매, 앞의 논문, p. 24 참조. 2012년 통계는 필자가 직접 조사한 결과이다.

민족 고유의 민족성 유지와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되는 심각한 문제이다.[15]

지금까지 중국 조선족학교의 교가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교가가 급속히 사라져간다는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놀라울 정도로 소홀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흑룡강성 조선족학교의 교가(校歌)를 수집하고, 수집된 교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조선족학교 교가

1908년 목단강지구의 녕안현에 흑룡강성 최초의 조선족 근대학교인 고안촌초등소학당이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난 100여 년간 중국 흑룡강성에 존재하였던 조선족학교의 숫자는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조선족학교에서 교가를 만들어 불렀는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당연히 당시 불렀던 수많은 교가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두 차례 중국 흑룡강성을 돌아다니면서 조선족학교의 교가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모두 47개교의 조선족학교 교가를 수집하였다.[16]

---

15) 채휘군, 「조선족 교육의 형성과정과 현안문제 고찰」, 『교육철학』 29, 한국교육철학회, 2006, p. 180 참조.

16) 47개교의 교가 중에는 판본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교가가 존재하는 경우가 5개교가 있었는데, 목단강시조선족소학교, 밀산시조선족중학교, 할빈시도리구조선족중심소학교, 목릉현원동소학교, 녕안시조선족중학교 등이 이에 해당하는 학교다.

<표-2> 연구대상 조선족학교 교가의 지역

지역 /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통합 조선족학교	대학교	기타	합계
하얼빈지구	0	9	6	0	1	0	16
목단강지구	0	7	5	1	0	0	13
계서지구	0	1	2	3	0	1	7
칠대하지구	0	0	1	0	0	0	1
가목사지구	0	0	1	1	0	0	2
이춘지구	0	1	1	0	0	0	2
학강지구	0	0	0	1	0	0	1
수화지구	0	2	1	0	0	0	3
치치할지구	0	1	1	0	0	0	2
합계	0	21	18	6	1	1	47

수집된 47개교의 교가를 분석하면, 현존 조선족학교 교가가 29개[17], 폐교된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가 18개였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하얼빈지구 조선족학교 교가 15개, 목단강지구 조선족학교 교가 14개, 계서지구 7개, 학강지구 1개, 이춘지구 2개, 가목사지구 2개, 칠대하지구 1개, 수화지구 3개, 치치할지구 2개 등이었다. 수집된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의 창작년대를 살펴보면, 1990년대 창작된 교가가 11개로 창작년대가 확인된 교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1980년대 창작된 교가가 8개였다. 이외에도 2000년대 창작된 교가 4개, 1940년대 창작된 교가 3개, 1950년대 창작된 교가 2개, 그리고 1920년대, 1930년대, 1960년대 창작된 교가가 각각 1개였다. 여기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사항은 1970년

17) 2012년 필자가 직접 흑룡강성 조선족학교를 조사한 결과, 현존하는 흑룡강성 조선족학교는 모두 48개교이며, 이 중 교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34개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초등학교 12개교, 중고등학교 16개교, 통합조선족학교 6개교였다.

대에 창작된 교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미확인 교가가 16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에 창작된 교가가 없는 까닭은 중국에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조선족학교 교가의 가사 분석

교가의 가사는 교가의 창작년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왜냐하면 조선족학교 교가는 당시의 사회적·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1945년 광복이전의 조선족학교 교가는 주로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항일 정신과 독립정신, 그리고 대중적 계몽의식과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족이 사는 지역에서 폭넓은 민족적 기반을 구축하고 독립운동 사상을 배양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의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는 주로 각 시기별 정치적 변화에 따라 공산당과 사회주의 찬양, 중화사상, 배움(터)의 중요성 강조,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내용 등 다양하게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었다.[18] 이렇듯 조선족학교 교가는 지난 100여 년간의 조선족이 처한 상황을 비교적 잘 나타내고 있어 당시의 사회적·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연구대상 47개교의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 가사를 분석한 결과, 1945년 이전에 자주 나타났던 항일 혹은 독립정신을 배양하는 교가는 없었다.[19]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에는 배

18) 안병삼,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의 망실과 그 특징」, 『한국민족문화』 3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p. 391 참조.

19) 여기서 아쉬운 점은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의 시기별·지역별 분석을 위한 많은 학교들의 다양한 창작시기별 교가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움(터)의 강조, 민족의식 고취, 공산당 찬양 등이 표현되었다.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움(터)의 강조

학교에서 배움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시대적 환경에서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사실은 배움(터)의 강조가 모든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학교 본연의 의무이라고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에 나타난 한 배움(터)의 강조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배움(터)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선족학교 교가가 순수하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 혹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정치적인 색채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등소평의 실사구시 정신에 따라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을 발전시켜한다는 중국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주의적 인간양성과 경제발전을 목표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가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은 1985년에 발표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교육체제개혁에 관한 결정》과 1993년도에 발표된 중국의 교육개혁 지침인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요》란 문서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교육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을 보면,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은 반드시 교육에 의지해야 한다.”고 하였다.[20] 사회주의 중국에서 교육은 정치에 종속적이면서 군부나 당과 더불어 첨예하게 정책대

과 수집된 교가 중 연대를 알 수 없는 교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 구자억,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주의 교육관 고찰」, 『한국교육』 24, 한국교육개발원, 1997, p. 23.

결이 이루어지는 영역 중 하나이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 교육이 줄곧 정치와 경제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요구받았던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쉽게 확인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은 '두 마리 토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한편 생산력의 일부로서의 자본주의적 현대화를 위한 도구로 다른 한편 사회주의적 인간 양성이라는 상호 대립적인 두 가지 목표가 교육에 대한 요구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현대화를 추구하려는 시도이다.[21] 이러한 배경아래 중국 흑룍강성 조선족학교 교가 속에서 배움(터)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표현하였다. 다음은 녕안시조선족중학교 교가이다.[22]

배움의 천릿길 험난하여도 선배들 가꿔온 전통을 이어
가시덤불 헤치며 나아가리라 사랑스런 그 이름 영원하리라
아, 아 녕조중 우리의 녕조중 우리의 녕조중
민족의 자랑 영광에 빛나라

녕안시조선족중학교 교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험난', '가시덤불'과 '전통을 이어', '헤치며 나아가리라'는 서로 대립되는 단어를 사용하여 포기할 수 없는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도입부는 배움의 길이 천릿길의 험난한 길이라고 묘사하면서 선배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전통을 만들었기에 배움의 길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표현하였다. 중간 부분은 배움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렬하게 표현되는 부분으로, 배움의 길을 가시덤불이라고 묘사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개의치 말고 무조건 나아가겠다고 맹세한다. 마지막 부분은 학생들 배움터인 학교 이

21) 정영홍,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와 조선족교육의 미래」, 『교육철학』 15, 한국교육철학회, 1997, p. 400 참조.

22) 녕안시조선족중학교 교가 2절이다. 출처: 녕안시조선족중학교 1층 현관 게시판.

름의 반복적인 외침을 통해 배움의 어려움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학생들이 공부하는 녕안시조선족중학교가 영원히 빛나리라는 확신을 표현하였다. 순수한 의미에서는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면서 동시에 당시 중국 정부가 추진한 사회주의적 현대화를 이끌기 위한 사회주의적 인간양성의 목표를 위해 교육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이 교가가 다른 교가와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일반적인 교가의 도입부에서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산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23] 반면에 이 교가에서는 곧장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얼빈시조선족제2중학교 교가[24] 역시 배움(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 아 빛발친다 우리 조2중 창조의 요람이다 우리 조2중
탐구의 불길이 이글거린다 지식의 불꽃이 번쩍거린다
아, 가슴 뜨겁게 청사에 빛내가자 우리 조2중

하얼빈시조선족제2중학교 교가는 배움에 대한 욕구를 형용사 '빛발친다', '이글거린다', '번쩍거린다', '뜨겁다'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강렬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법은 흔희 공산주의 예술에서 볼 수 있는 강렬한 표현법으로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도입부는 녕안시조선족중학교 교가와 마찬가지로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산천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곧바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배움터인 학교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23)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을 통한 호연지기의 배양은 물론 향토애와 자긍심을 심어주는 발로이기도 하다. 전영권, 「교가에 나타난 대구의 지형관」, 『한국지형학회지』 19-4, 한국지형학회, 2012, p. 84.

24) 하얼빈시조선족제2중학교 교가 2절이다. 출처: 이 교가를 작곡한 백설봉 선생님이 제공.

이곳이 빛나는 창조의 요람이라고 표현하였다. 중간 부분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점층적으로 표현하여 배움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즉 배워가는 탐구의 길은 학생들의 열정으로 이글거리고, 배움을 통해 얻은 소중한 지식은 불꽃이 되어 번쩍거린다고 표현하였다. 배움터인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지식들은 사회와 국가에서 필요한 소중한 지식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은 배움(터)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교를 영원히 빛내가자고 표현하였다. 이 교가는 열정을 가지고 학습하는 배움의 중요성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교육을 담당하는 배움터인 학교를 시작과 끝에서 강조한 교가이다.

종합하면,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는 순수한 의미에서 배움(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든 아니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 인간양성이라는 중국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영한 것이든 배움(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가를 창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인 배움(터)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가는 중학교 교가보다는 소학교 교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25]

---

25) 아래는 배움(터)의 중요성을 강조한 소학교 교가이다. ①흑룡강성 하얼빈시도리구조선족중심소학교 교가 1절(출처: 하얼빈시도리구조선족중심소학교 1층 게시판)과 ②하얼빈시동력구조선족소학교 교가 1절(출처: 학교 홈페이지)이다.

① 얼음도시 송화강에 피여나는 흰눈송이 배움의 요람에서 파란꿈
키워가자 아아 꿈과 사랑 영그는 도리조선족소학교
재간둥이 요람아 즐거웁구나 우리학교 즐거워라

②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한 우리
학창의 꽃 꿈도 태양처럼 찬란한 우리
라라라라라라 동력소학 라라라라라라 우리의 학교
미래와 희망을 키워가는 우리의 요람
동년의 자리에 우리들의 이름 새긴다.

2) 민족의식 고취

조선족학교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의식을 심어주려는 노력은 조선족이 한반도를 떠나 중국이라는 타국에서 생활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1906년 독립운동가 이상설이 용정에 중국 조선족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이 민족교육을 시작한 이래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수많은 조선족학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흑룡강성 조선족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족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중화대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며, 민족적 측면에서는 이주민족으로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 때문에 조선족은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론적 특징을 갖게 된다.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정체성이 항상 일대일의 비례로써 공존해 있거나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정체성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위치가 바뀔 수 있으며 그러는 사이에 조선족특색의 정체성이 확립되어가는 것이다.[26]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에서 민족의식의 고취가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민족의식 고취 3단계'로 구분하였다.[27] 1단계는 1945년 이전 일제패망이전에 조선족학교 교가를 통해 교육한 것이다. 이 시대의 민족의식은 나라 잃은 민족이 지닐 수 있는 독립을 향한 민족정체성이며, 이 독립국가에서 다시 옛날 조상들이 이룩했던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

---

26) 한홍화, 「『바람꽃』을 통해 본 조선족 정체성의 변이양상 : 주인공 의식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3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p. 194.

27) 민족의식 3단계 구분은 모든 조선족학교 교가가 이에 해당된다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대부분 조선족학교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민족의식 변화 단계이다. 안병삼, 「중국 요녕성 조선족학교 교가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43, 한민족문화학회, 2013, p. 96 참조.

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단계에서의 특징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우리 민족의식을 배양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다. 2단계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 교가에 나타난 민족의식이다. 이 시기는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서 다른 민족 문화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민족정체성을 말한다. 동시에 유구한 역사를 지닌 자랑스러운 민족이라는 민족의 자부심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이며, 조선족의 민족의식이 중화문명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3단계는 200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조선족과 한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민족의식이다. 이것은 모든 민족이 중화의식을 바탕으로 뭉쳐야 한다는 중화민족으로서의 민족의식이다. 이는 한족과 조선족이 각기 자기 민족의 문화를 학습하는 동시에 상대 민족의 문화도 함께 학습하여 다민족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민족의 문화가 공존하도록 하여 한족의 문화도 조선족의 문화도 아닌 하나의 새로운 문화인 중화민족문화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다.[28]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는 대부분이 2000년대 이전에 창작된 경우가 많아 아직까지 2단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민족의식 고취를 잘 보여주는 상지시조선족중학교 교

28) 3단계에서 보여주는 민족의식의 형성은 1990년대 중반 중앙민족대학의 민족교육학자 滕星이 제기하면서 확대되기 시작한 '다원일체화교육이론'의 결과이다. '다원일체화교육이론'은 중국은 소수민족들에게는 해당 민족의 문화를 교육하는 동시에 주체 민족인 한족의 우수한 문화를 교육하고 더 나아가 한족들에게도 주류민족인 한족의 문화를 교육하는 동시에 소수민족의 우수한 문화도 함께 교육하자는 것이다. 다원일체화교육의 최종 목적은 각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각 민족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통일된 다민족국가인 중화민족대가정의 경제에 있어서의 공동발전을 촉진하여 문화상에서 공동의 번영과 정치상에서의 각 민족의 상호존중, 평등, 우호와 친목을 다져 최종적으로 각 민족의 대동단결을 실현하는 것이다. 김정호, 「중국의 소수민족교육과 다문화교육」, 『사회과 교육』 47-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8, p. 108 참조.

가이다.[29]

빛나는 래일의 리상을 안고서 탐구로 불타는 글소리 높구나
겨레의 기상을 누리에 떨쳐갈 어엿한 일군들이 여기서 자라네
나래쳐 오르자 지식의 고봉에 배움의 무궁화 배움의 무궁화 우리의 상조중

위 교가는 비록 1945년 이전에 창작된 교가는 아니지만 '민족의식 고취 3단계' 중 1단계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즉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룩했던 찬란한 겨레의 민족문화를 온 세상에 떨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족의식 고취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우리 민족의식을 배양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다.[30] 이 교가의 도입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은 조선족의 교육열을 표현하였다. 주지하다시피 20세기 초, 많은 한민족들은 조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일제의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였고, 그들은 피와 땀으로 황폐한 땅을 비옥한 농토로 만들었다. 중국에서 조선족이 되어서 그들은 서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조선족들은 비록 자신들은 헐벗고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난을 대물림시키지 않고 조선족으로서 떳떳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다는 절박한 신념이 있었다. 중간 부분은 조선족 교육에 대한 열정이 겨레의 기상을 떨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현재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미래에 우리 민족 겨레의 기상을 떨

29) 상지시조선족중학교 교가 2절이다. 출처: 개교60주년기념책자.

30) 이러한 교가에 해당하는 흑룡강성 라북조선족중학교 교가 1절이다. 이 교가를 작곡한 리선화선생님이 제공하였다.
룡강의 대디우에 우뚝솟은 변강의 희망싣고 민족의 희망싣고
푸른 꿈을 키우는 라북조중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자
민족겨레의 사명감안고 용맹떨치자.

치기 위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은 미래의 꿈과 현재의 노력이 승화되는 모습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이상의 구현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지식을 배우자는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 학생들을 무궁화로 비유하여 민족의식을 더욱 고취하고 있다. 이에 이 학교의 교가 제목도 '배움의 무궁화'이다.

조선족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한족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중국사회에서 조선족이 소수민족으로서 불이익과 차별을 경험해왔던 것과 연관된다. 즉 민족평등을 주장하는 중국 국가의 공식적 담론의 강력한 영향 속에 조선족은 자신들에게 대한 차별을 '차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한족에 대한 우월함의 형태로 그들만의 종족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한족에 대한 열등감을 중성화시키고 동시에 한족과의 불평등한 경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31] 이에 상지시조선족중학교 교가에서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한족 문화와 다른 겨레의 기상, 한글, 무궁화 등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하얼빈시조선족제1중학교 교가이다.[32]

찬란한 민족문화 빛내는 우리학교
시대와 더불어 더불어 힘차게 달려가네
슬기론 민족의 얼 대이어가며 중화를 빛내려 힘써 배우네
아, 자랑스런 아, 합조일중 그 이름 영원히 영원히 길이 보존하세

하얼빈시조선족제1중학교 교가는 '민족의식 고취 3단계' 중 2단계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33]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

31) 이현정, 「조선족의 종족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7-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1, pp. 63-64참조.

32) 하얼빈시조선족제1중학교 교가 2절이다. 출처: 하얼빈시조선족제1중학교 1층 현관 게시판.

33) 이러한 교가에 해당하는 흑룡강성 벌리조선족중학교 교가 1절이다. 『중국

중 하나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으로서, 한민족의 민족정신을 잊지 말고 중화문명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 교가의 도입부는 조선족의 찬란한 문화를 빛내는 학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의 찬란한 민족문화에 이어 현재에서도 시대에 맞게 힘차게 이어간다는 내용이다. 중간 부분은 조선족의 슬기로운 민족의 얼을 이어가지만 동시에 중화문명을 빛내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족의 문화와 민족의 얼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이라는 국가를 위해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헌신해야한다는 중국 정부의 교육정책과 매우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학교를 영원히 보전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가 속 중화사상의 등장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 발전이 조금씩 이루어짐에 따라 중화사상을 통하여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동시에 여러 민족들을 통합하여 사회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다. 즉 중국 중심적인 사고를 심어줄 필요가 대두된 것이다. 다민족 다문화인 중국은 중화사상을 중심으로 대단결을 이룰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중화사상을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학교 교육방침과 결합되어 중화주의가 교가에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중화사상은 문화민족주의로 발전할 수 있으며, 한족을 포함한 중국 내 56개의 소수민족을 중화민족이라는 중화민족론을 대두시켰다. 그 결과 소수민족인 조선족 학생들에게는 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켜 한족 동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서 우리는 중화민족론과 관련하여 중국의 소수민족교육이 중화민족다원일체론

조선족교육』 1990년 12월호에 실린 교가이다.

동트던 중화의 이른 새벽에 민족의 뜻을 담아 일떠선 벌조중
짓밟힌 민족의 문화를 부추켜 이 땅의 화원에 꽃피여왔네
노래하자 벌조중 빛내이자 벌조중 북방의 조선민족 교육의 초소를

(中華民族多元一體論)[34]에 입각하여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중국의 소수민족교육은 중화민족 다원일체론(中華民族 多元一體論)에 입각하여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위한 소수민족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원일체론에 따르면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을 모두 포함하는 중국민족은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응집해야한다. 따라서 중국 소수민족교육은 중화민족의 다원일체화를 목적으로 소수민족문화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교육과 중화민족으로의 일체화를 위한 민족단결교육을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교육은 겉으로는 민족문화에 대한 정부의 배려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하나로 하는 일체에 통합되어야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다. 따라서 현재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수민족교육은 다원(多元)보다는 오히려 일체(一體)를 강조하는 동화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다문화교육이다.[35] 그러나 과거에 외부에서 어떤 다른 것이 들어와도 삼켜버리는 블랙홀과도 비유될 수 있었던 중화주의는 이제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형태를 달리한 민족

---

34) 중화민족다원일체론은 중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며 민족학자인 費孝通이 1988년 홍콩 중문대학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중화민족다원일체격국(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을 통해 중화민족의 개념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이후 중국의 민족학자들이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쳐 현재 새로운 중국민족의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費孝通이 다원일체론을 통해 새롭게 제기한 중화민족론은 이후 중국의 민족구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중화민족은 중국 영토 내에 존재했던 고금의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중화민족은 현재의 중국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역대의 모든 민족들을 총칭하는 민족의 호칭으로 중화민족은 한족과 소수민족 등 민족의 기원이 다른 모두 영내의 민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費孝通은 또한 "50여개의 민족은 다원(多元)이고 중화민족은 일체(一體)이다"라고 언급하였는데 일체(一體)는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단결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정호, 앞의 논문, pp. 105-106 참조.

35) 같은 논문, p. 103.

주의의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통합의 원리로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되면서 역사적 기억을 내장시킨 새로운 형태의 중화민족론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인민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변형된 국민론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로서는 이것이 다시 사회 통합의 원리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36] 결과적으로 중화사상의 강조는 중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민족단결교육의 일환인 것이다. 민족단결교육은 1994년 전국의 초중고에서 일제히 시작된 교육으로, 이것의 핵심목표는 한족은 소수민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소수민족은 한족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소수민족 간에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三個離不開'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애국주의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각 급 학교의 학생들에게 중국 내 여러 민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각 민족을 이해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중국의 모든 민족은 중화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37]

결론적으로,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 가사에서는 조선족 자체의 민족정체성을 고취할 만한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내용이 많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의식 고취는 대부분이 조선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중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3) 공산당 찬양

중국 공산당의 최대 업적 중 하나가 중국 인민 대다수에게 정치의식을 심어준 것이며, 이것은 분산된 대중의 정치적 통합을 목표

---

36) 조경란, 「현대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국민화 이데올로기」, 『시대와 철학』 17-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pp. 83-84 참조.

37) 김정호, 앞의 논문, p. 123 참조.

로 삼았다.[38] 교가에서도 정치적 통합을 위해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고, 그 결과 조선족학교 교가 가사에서 공산당에 대한 찬양을 가장 많이 표현하였다. 이러한 교가는 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이후부터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되기 전까지 창작되었다. 이 시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식적으로는 궁극적 목표를 무계급 공산사회를 건설하는데 두고 이를 위해 과도기적으로 사회주의하의 공산당 일당 독재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 정치는 공산당 내에서의 노선을 통한 대립과 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우선시하는 노선과 실용주의 노선간의 갈등이 그 중심적인 축을 이루어왔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우선시하는 노선은 평등과 계급투쟁을 강조하면서 계속 혁명을 추구하고 당의 관료주의화에 반대하며 군중의 힘으로 사회발전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산당을 중심으로 사회가 통합해야 한다는 사회통합의 원리로 사용하였다. 실용주의 노선을 우선시하는 노선은 능률을 지향하면서 현대화 또는 과학기술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생산력 증대를 중시하는 노선이다. 물론 이 대립과 갈등은 공산당 독재와 사회주의 고수라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공산당에 의한 건국 이후 중국의 현대사는 이 두 노선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중국 현대사에 나타난 정치적인 모습들은 조선족학교 교가에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교가 가사 속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선전과 현대화·과학기술·성실한 노동자 등을 강조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점은 이러한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 조선족학교 교가 속 공산당 찬양은 스스로 매우 위험한 함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정치적 색깔이 농후한 공산당 찬양의 교가를 가진 조선족학교는 권력

38) 레이초우,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이산, 2005, pp. 128-129 참조.

의 도구를 만들어낼 뿐 교양있고 자주적인 학생을 배출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학생들은 당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능력은 없어진다. 이에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목적에 사용될 온순한 도구가 된 것에 만족해야 한다. 다음은 공산당을 찬양하고 있는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 조선족중학교 교가이다.[39]

봉밀산 우뚝솟은 조국 변강에 근로의 교풍이은 신형의 로동자
공산주의 설계도를 한 가슴에 안고 찬란한 당의 기치 높이 들고 나간다
아, 영광스런 밀산조선중학 교육방침 빛발아래 길이 번영하리

밀산시조선족중학교 교가의 특징은 실용주의적 노선을 가지고 새로운 노동자를 양성하면서 현대화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한 조국을 건설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교가이다.[40] 도입부는 학교가 위치한 봉밀산이라는 조국 변강을 설명하면서 이 학교의 교풍이 근로라고 강조한다. 그 곳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을 사회주의가 원하는 새로운 노동자라고 말하고 있다. 즉 학교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성실한 노동자를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간 부분은 도입에서 언급한 새로운 노동자가 펼치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몸으로는 조국 현대화에 필요한 과학적 기술인 공산주의 설계도를 가슴에 안았고, 머리로는 절대 충성의 당의 기치를 따른다는 것이다. 교가에서 많이 보이는 설계도라는 표현은 중국 정부가

39) 밀산시조선족중학교 교가 1절이다. 출처: 밀산시조선족중학교 1층 현관 게시판.

40) 이러한 교가에 해당하는 흑룡강성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 교가 3절이다. 이 학교 교장선생님이 제공하였다.
목단강 하늘가에 찬란한 불빛은 새 위훈 떨쳐가는 불꽃이런가
현대화 설계도를 수놓는 배움터 공산주의 앞날에로 활개쳐나가네
아, 영광스런 우리의 목조중 력사의 사명안고 길이 빛나라

추진하는 현대화사업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등소평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전략에서 경제발전을 하자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육이 과학기술을 진보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작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41] 마지막 부분은 이 모든 것이 행해지고 있는 학교 이름을 강조하면서 학교의 번영 역시 공산정권의 교육방침 아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다음은 흑룡강성 계동현조선족중학교 교가이다.[42]

따사로운 당의 해살 앞길 비추니 행복한 학습생활 주렁지는 곳
자애론 원예사의 보살핌속에 새일대 자라나는 행복의 요람
나아가자 동무야 교풍을 빛내며 배움의 만리길에 나래펼치자

계동현조선족중학교 교가는 공산당을 찬양하는 표현 방법에 있어 현대화·과학기술·성실한 노동자 등을 강조한 방법과는 달리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선전을 강조한 방법이다. 도입부를 보면, 교가의 시작과 동시에 따뜻한 당의 해살이라는 비유를 통해 공산당을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따뜻한 당의 해살은 학생들의 앞길을 보살펴주고 이러한 보살핌 속에 행복하게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 부분은 공산당의 해살이 원예사의 보살핌으로 보다 구체화되어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자애로운 원예사란 당의 해살의 전도사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을 가리킨다. 이러한 원예사의 보살핌 속에 역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은 공상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동무들이 학교가 내세운 교풍을

41) 구자억, 앞의 논문, p. 9.

42) 계동현조선족중학교 교가 2절이다, 출처: 계동현조선족중학교 1층 현관 게시판.

빛내고 배움의 길을 한없이 펼쳐가자는 내용이다. 여기서 강조한 공산당 찬양으로서의 이데올로기 선전은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공산당은 인민을 위해 일한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선족학교 교가에 나타난 사회주의 찬양은 대부분이 공산당의 따뜻한 품속에서 어린 학생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나고 있다는 '공산당 햇살론'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배움의 요람인 학교에서는 국가가 주는 사랑에 보답하고자 국가가 원하는 학생, 국가를 위한 학생들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무라고 표현하였다.[43]

결론적으로, 조선족학교 교가 가사에서 나타난 공산당 찬양은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동시에 조국의 현대화는 과학기술을 통해 학생들이 성실한 노동자가 되어 이룩한다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다.[44] 이러한 교가의 사회적 배경은 중국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당시 등소평은 중국의 현대화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대화 건설과 과학기술 그리고 교육의 삼자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과학과 교육의 작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과학이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5] 이에 학교에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선전을 통한 단결과 중국의 현대화를 실현할 과학기술의 강조가 필요했던 것이다.

---

43) 안병삼, 「중국 요녕성 조선족학교 교가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43, 한민족문화학회, 2013, p. 101 참조.

44) 다음은 공산당을 찬양한 송조중 교가이다. 출처는 상지시조선족중학60주년 기념책자에 실린 것이다.

대륙의 각 민족 진리로 단합해 로농의 락원은 건설로 나간다
뜻같은 배움에 광명빛 종소리 새시대 새정신 나날이 굳긴다
혁명과 건설 우리가 할 일 아 송조중
이곳 빛나는 민주의 학원 승리의 길 향해 배우자 싸우자

45) 구자억, 앞의 논문, p. 8.

4. 맺음말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교육은 교육정책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학교가 어떤 민족교육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조선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가 확정한 통일된 교육방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중국의 교육방침은 중국 내 어떤 지역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사업에 있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기본 지침인 것이다. 이를 근거로 생각하면 조선족학교 교가는 중국 정부의 교육정책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교가 속 가사 내용은 변화하였고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사상은 조선족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 조선족집거지의 붕괴로 그것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던 조선족학교의 폐교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조선족 교육의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족학교의 폐교과정에서 오랫동안 민족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조선족학교 교가는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어 그 교가의 보존과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필자는 교가 수집과정 중 사라져가는 수많은 학교 교가들을 보면서 교가에 대한 수집, 보존 그리고 그 연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것은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가 단순한 학교의 노래라는 의미를 넘어 지난 100년간 각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가에 한민족이 지녀야 할 시대적 정신과 교육적 이념 등을 불어넣어 부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중국 흑룡강성의 조선족교육에 대해 살펴본 뒤 중국 현지에서 수집된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47개교의 교가를 대상으로 그 가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대체로 수집된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배움

(터)의 중요성 강조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사실은 배움(터)의 강조가 모든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학교 본연의 의무이라고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에 나타난 한 배움(터)의 강조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배움(터)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선족학교 교가가 순수하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 혹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정치적인 색채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등소평의 실사구시 정신에 따라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을 발전시켜한다는 중국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주의적 인간양성과 경제발전을 목표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인 배움(터)의 중요성 강조 교가는 중학교 교가보다는 소학교 교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민족의식 고취이다. 타국에서 살아가는 조선족은 자신의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해 조선족학교에서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선족학교 교가에서 나타난 민족의식 고취는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에 나타난 민족의식 고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주로 1945년 이전 일제패망이전에 조선족학교 교가를 통해 교육한 것으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우리 민족의식을 배양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 교가에 나타난 민족의식이다. 이 시기는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서 다른 민족 문화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민족정체성을 말한다. 동시에 유구한 역사를 지닌 자랑스러운 민족이라는 민족의 자부심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가 속 중화사상의 등장은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경제적 발전이 조금씩 이루어짐에 따라 중화사상을 통하여 중국 문화에 대한 자

부심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동시에 여러 민족들을 통합하여 사회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많은 학교에서도 중화사상을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생각과 결합되어 중화주의가 교가에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소수민족인 조선족 학생들에게는 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켜 한족동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공산당 찬양이다.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 가사 속에서 나타난 공산당 찬양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선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대화, 과학기술, 성실한 노동자 등을 강조한 것이다. 그 결과 학생들은 당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능력은 없어진다. 이에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목적에 사용될 온순한 도구가 된 것에 만족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교가가 급속히 사라져간다는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매우 소홀한 상황이다. 중국 조선족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은 물론 그것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하루빨리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구자억,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사회주의 교육관 고찰」, 『한국교육』 24, 한국교육개발원, 1997, p. 23.

김미영, 『충청남도에 소재한 중학교의 교가 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익기 외,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김정호, 「중국의 소수민족교육과 다문화교육」, 『사회과 교육』 47-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8, p. 108.

레이초우,『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이산, 2005.
문정매,『중국조선족학교 통·폐합의 원인분석 - 흑룡강성 조선족학교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2007.
손태룡,『한국음악논전』,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안병삼,「중국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교가 연구」,『인문과학연구』3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p. 533.
안병삼,「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의 망실과 그 특징」,『한국민족문화』3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p. 391.
안병삼,「중국 요녕성 조선족학교 교가 연구」,『한민족문화연구』43, 한민족문화학회, 2013, p. 96.
이현정,「조선족의 종족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비교문화연구』7-2, 서울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2001, pp. 63-64.
정영홍,「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와 조선족교육의 미래」,『교육철학』15, 한국교육철학회, 1997, p. 400.
조경란,「현대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국민화 이데올로기」,『시대와 철학』17-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pp. 83-84.
전영권,「교가에 나타난 대구의 지형관」,『한국지형학회지』19-4, 한국지형학회, 2012, p. 84.
채휘군,「조선족 교육의 형성과정과 현안문제 고찰」,『교육철학』29, 한국교육철학회, 2006, p. 180.
한흥화,「『바람꽃』을 통해 본 조선족 정체성의 변이양상」,『한국민족문화』3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p. 194.
최범수 등 편,『黑龍江省朝鮮族教育史』, 東北朝鮮民族教育出版社, 1993.
許靑善 외,『中國朝鮮民族教育史料集4』(下), 延邊教育出版社, 2004.
羅正日, 「關于黑龍江省朝鮮族教育情況的調查」, 『黑龍江民族叢刊』95-6, 2006, pp. 99-105.
崔相錄 외, 『中國朝鮮族教育的現狀与未來』,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1995.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584415.html.
http://www.dituhui.com/data/19599
http://bbs.tianya.cn/post-worldlook-502201-1.shtml

A Study on the School Song Lyrics of Chinese-Korean School in China's Heilongjiang Province

An, Byung-Sam

This paper started as an endeavor to preserve Korean culture property through the discovery and analysis about school's songs of Korean schools in the Chinese-Korean residence, of which population is quickly disappearing. Through two sessions in August 2011 and January 2012, authors collected 47 school songs from existing Korean schools to already closed Korean schools by going around China Heilongjiang Province. This paper's subject of research is the 47 songs collected from China Heilongjiang Korean schools. By looking at the subjects of research by historical periods, the schools founded in the 1990s have 11 songs which accounts for 23.4% and the school founded in the 1980s have 8 songs which accounts for 17%. By looking at the school's songs by closed schools and existing schools, the existing schools have 29 songs which accounts for 61% and closed schools have 18 songs which accounts for 38.2%.

Chinese-Korean schools reflect the period's background as well as serving various educational purposes. we looked at the school song's lyrics of the Chinese-Korean schools that collected in the 1900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school songs of this period, mainly depending on each period's political changes, can tell us the information's variety through parise of communist and socialism, China ideology, school pride and cultivating national spirit.

Key words: Chinese-Korean, Chinese-Korean School, School Song lyrics, background, national spirit

안병삼
소속: 초당대학교 한중정보문화학과
주소: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전화번호: 019-477-2774
전자우편: bayusansan@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10월 28일 투고하여
2013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31일 게재 확정함.